

이슈



전망

조분규 사무국장

2005년 오리업 전망

지난해 오리 산업은 경제악화로 인한 외식소비문화가 바뀌면서 소비량 감소와 '02년부터 생산과잉으로 누적된 재고물량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장기불황이 이어진 한해였다. 연초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종자오리 도태 및 종란감축 등 오리업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 효과는 여름철 산지오리 가격을 잠시나마 높여주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누적된 재고량 및 외식소비 감소의 벽에 막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못하는 요인이 됐다.

지표상으로 지난해 오리 산업은 2천5백42만수의 오리를 생산하여 오리고기 생산이 전년에 비해 11% 감소하였고 소비량은 조사된 4개 계열화업체 기준으로 25% 내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지오리가격은 년 평균 4,195원에 거래되어 육용오리 수당 생산비 4,500원에 비해 300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업계의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올 1/4분기 오리고기 생산을 예측할 수 있는 지난해 12월 기준 산란오리 사료 판매량은 1,847톤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산란오리 사료 판매량을 종오리 일일 사료섭취량 230g을 기준으로 사육물량을 추정할 때 21만4천수의 암컷 종오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는 2003년도 같은 기간의 사육물량에 비해서는 5% 감소하였으나 전월의 사육물량 16만수에 비해서는 무려 5만수 내외 늘어나 34% 사육물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12월의 종란 생산량은 산란율 65%로 계산할 때 4백17만3천개의 종란이 생산되고 1월의 새끼오리 생산량은 부화율 65%로 계산할 때 2백71만2천수의 새끼오리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2월 종란생산량의 50%를 감축한 것을 감안하면 1월의 새끼오리 생산량은 1백90만수 내외가 생산되어 2월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1백71만수 내외의 육용오리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육용오리생산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생산량 1백98만수에 비해 14%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표상으로는 전년에 비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누적된 재고물량의 상당량이 소진되지 못한데다 경기침체로 인한 오리고기 소비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기호전을 속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05년 오리업계는 종자오리 절반이 넘는 물량이 생산성이 높은 PS 종자오리로 교체될 것으로 예측되어 부화장 및 사육농장의 육용오리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만수의 PS종자오리가 이미 교체

되어 3월부터 새끼생산에 들어가고 연말까지 8만수내외의 PS 종자오리가 도입될 예정으로 종자오리 개량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종자오리 개량을 위한 PS종자오리의 도입은 생산측면에서 PS 종오리에 의한 새끼오리 생산과 상업용 오리에서 육성된 종자오리가 혼용된 상태에서 육용오리 생산이 이어지면서 사육업계의 생산조절을 위한 자구 노력이나 종오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늦어지면 생산이 과잉되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종자오리 사육업계 및 계열화업체의 협력에 의한 생산과잉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하느냐가 올 오리업계 경기전망의 최대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생산유통업계가 힘을 합친 각고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며 이는 올 경기 호황과 불황의 최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가 하면 사육농가의 사육형태는 도축장 중심의 생산 유통이 정착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위탁사육형태의 사육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개별농가들의 육용오리 사육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오리생산측면에서의 위생이 강화되면서 종자오리 사육업계의 생산 사육시스템의 변화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축장의 위해요소 중점관리를 하는 도축장이 늘어나면서 품질 좋은 오리고기 생산이 늘어나 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측면의 또 다른 변화는 도축장 중심의 생산유통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산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생산비를 낮추려는 계열사업체들의 검증시스템이 강화되고 사육농가는 생산성 향상 없이는 오리 사육 자체가 힘들어지는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통측면에서는 유통마진을 고려한 판매 활동이 경쟁업



체간 유대강화에 의해 결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유통업체의 출혈경쟁에 의해 전 업계가 부실화되는 우려를 서로가 공감하는데서 나오고 있다.

소비측면에서는 외식산업의 침체로 인해 일반 가정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망 확충에 의한 소비를 늘리려는 업체의 노력이 가

시화되어 부분육 형태의 가공 및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가정 소비는 다소 늘어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인 축산물 가격 상승에 힘입어 단체급식에 오리고기가 활용되는 현상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05년 오리 산업의 경기전망은 그리 밝지는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종자오리의 개량부화장과 일반 상업용 오리를 이용한 부화장들의 새끼오리 혼용생산에 의해 생산과잉이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오리고기 소비는 국내 어두운 경기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일시에 크게 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체별 결속에 의한 생산조절이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 없이는 올해 경기를 낙관할 수 없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업계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며 허리피고 살만한 오리업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생산에 소속된 업계 종사자들의 결속이 필연적이다.

올유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모두가 축배의 잔을 들 수 있도록 떨어져서가 아닌 공동체적 시각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사업을 이끌어 가는 지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이어온 경기 불황의 터널을 이어갈 것이지 아니면 호황의 길을 맞이할 것인지 전적으로 업계 종사자의 선택과 책임임을 재인식하자.